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추석 맞아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재개

9월 23일(토) 4년만에 유가족들과 광림의 교우들 함께 예배드려

광림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감람동산 잔디광장에서 합동추모예배를 드렸다. 코로나로 4년만에 재개된 이번 예배에는 많은 광림의 교우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가 말씀을 전했으며, 광림 여성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 조성한 목사는 과거, 현재, 미래(딤후 4:7-8)라는 제목으로 "천국 소망으로 고인의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라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다.

성도의 영적 돌봄을 위한 감람동산
감람동산은 광림교회 목회 철학인 '모태에서 천국 소망까지' 성도의 영적 돌봄을 위해 2007년 8월 봉헌된 자연친화적 기독교 장례 문화 시설이다. 강촌광림교회(사랑의 집) 내에 위치한 1,000여 평 규모로 아름다운 조각

물과 함께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감람동산에는 현재 1,200여 기의 영혼이 안장되어 있으며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지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박정란 권사(4교구)는 "저희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 언니 세 분을 감람동산에 모셨어요. 고인들을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계시는 시아버님, 친정아버지도 이장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요"라고 말했다. 강촌광림교회 1층 베다니 홀에서는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디지털 명패기에 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스크린에 이름, 생년월일, 소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메뉴 중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통해 고인을 추억할 수 있다. 또, 유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추모 글을 최대 5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다.

장로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7일(주일) 오후 3시 광림수도원에 안장된 고 김선도 감독님 묘소를 방문하여 15명의 장로들이 합동추모예배를 드렸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광림경조위원회
광림교회 경조위원회(위원장 배경호 장로)는 광림 성도들의 모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하여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정성껏 돕고 있다. 갑자기 상을 당하였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경조위원회에 연락하면,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담당자에게 장례 절차, 장지 등 모든 과정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실제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지구장이나 담당 전도사 또는 선교구 목사에게 연락하면 절차에 따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인도하여 고인을 천국 길로 환송하고 주님의 품에 안식케 한다. 감람동산은 광림교회 교인이나 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친척이나 지인인 경우에는 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례 관련 문의 및 이용 안내 :
02-2056-5379, 010-5218-4453

이정순 기자



2 광림의 강단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3 광림 스토리
장흥 빛의숲교회 기공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스데반 연합 선교회

5 다음세대
청년선교국 단기선교

7 목회현장
기드온 선교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눅 17:5)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모습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향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4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용기가 아닌 마음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5절)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우리는 어떠한 간절한 소원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할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 당하여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待望)했습니다. 마침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 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인 어부가 됩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행 1:6)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지속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느끼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변화된 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직 믿음의 문 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자기 의존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눅 17:4-10

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둘째, 진실한 믿음을 간직한 자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진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새싹이 나고 자라나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시작은 미비했지만 2천여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과 열두 명의 제자들뿐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이 개신교입니다. 소수의 복음 전도자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믿음일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

실된 믿음이 아니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울리는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될 때, 그 진실된 믿음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 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중요치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되면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져 갑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간직하여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성된 종의 믿음을 간직한 자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7-8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힘든 일을 하더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칭찬과 격려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종과 같은 충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할 때에 인정과 칭찬,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다분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종처럼 묵묵하게 일하고 충성을 다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노년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메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영역은 좁아지고 안 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 행복과 성공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에 주님은 깨끗한 믿음, 진실한 믿음, 충성된 종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흥 빛의숲교회 신축 기공예배

복음의 빛으로 숲을 이뤄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

지난 9월 8일(금) 오후 1시 전라남도 장흥군 동교로 36-2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다. 전국 군(郡) 단위 도시 중 유일하게 감리교회가 없었던 장흥군에 광림교회의 후원으로 장흥 빛의숲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호남특별연회에서 대지를 마련하고 광림교회에서 건축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전에 장흥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 신동준 목사가 담임을 맡아 교회 개척과 부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마 16:13-20)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워질 장흥 빛의숲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숲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회 이름을 '빛의숲'이라고 지은 것은 '광림(光林)을 한글로 풀어낸 것이며, 장흥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음을 밝혔다.

호남특별연회의 김필수 감독은 기공 선언과 장흥 빛의숲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후원을 해준 광림교회와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흥 빛의숲교회는 이날부터 공사를 시작해 약 6개월 후 2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1층은 소예배실과 애찬실, 사택, 2층은 예배실(100석 규모), 교회 사무실과 유아부실, 방송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림교회는 감리교회가 많지 않은 호남특별연회의 교회 개척과 건축에 관심을 갖고 목포광림교회, 무안 비전광림교회를 봉헌하였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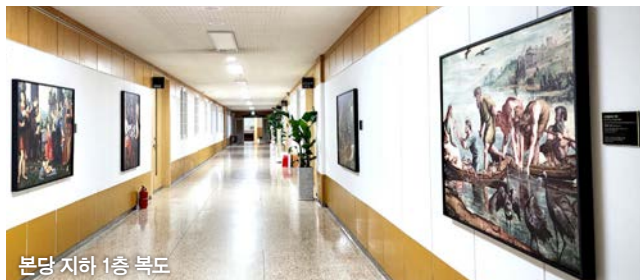
장흥 빛의숲교회 기공예배



미술인선교회, 성전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는 지난 여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롭게 하고 일부 선교회와 교회학교의 위치를 개편했다. 본당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과 지하 1층 복도와 양쪽 벽면, 사회봉사관 3층 복도에 미술인선교회 회원들의 작품과 기독교 명화 작품을 걸었다. 성도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에 기독교 미술 작품을 전시해 마치 아트 갤러리처럼 꾸민 것이다. 이런 변화에는 미술인선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이 밀거름됐다. 총 8명 화가의 성화 작품 10점의 데이터를 기증받았고, 캔버스에 디지털 실사 프린트로 제작해 재탄생시켰다. 그 밖에도 각 부서의 성격에 맞는 기독교 명화들을 출력해서 완성한 캔버스 액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각 작품 옆에는 제목과 작가의 이름, 기본 정보 등을 담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작품 설명과 말씀 구절이 더해져 작품을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한혜선 기자



본당 지하 1층 복도



사회봉사관 3층

포토 뉴스



2023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 학기 '잠언'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다.



추계산상기도회
10월 7일(토) 본당 대예배실에서 추계산상기도회가 열린다.



남선교회 스테반 연합 선교회
9월 10일 ~ 11월 12일까지 선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 9/17 세례 예식
- 9/19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9/20 수요치유의신학
- 9/21 2군단 방문
- 9/22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영성수련회
- 9/24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광림교회 70주년, 스테반으로 통한다

9월 17일에 2, 5, 6선교구 남선교회 스테반 연합 선교회로 모여



광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믿음의 젊은 가정들을 세우는 2, 5, 6선교구 스테반 선교회 연합 모임이 9월 17일(주일) 3부 예배 후 열렸다. 2선교구(4, 5, 6교구)는 실로암에서, 5선교구(13, 14, 15교구)는 예수와에서, 6선교구(16, 17, 18교구)는 애찬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광림교회 70주년, 스테반으로 통한다”는 주제로 지난 4월 16일(주일) 10선교구부터 시작된 스테반 연합 선교회는 현재 선교구별로

진행 중이다. 6선교구 스테반 연합 선교회에는 아이들과 스테반 회원 18가정, 남선교회 본부 임원들을 합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에서 박영균 목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가 되어 주어진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값있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강조하면서 광림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30, 40대 젊은 스테반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 회장)는 “스테반 연합 모임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연합 회장님, 교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테반 선교회는 결혼 후 50대 초반까지 가족끼리 모이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스테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속회와 선교회로 열심히 모일 때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부흥하고 성장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선교구별로 서로의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식사하면서 친교도 나눴다. 선교구별로는 가족 사진 찍기, 퀴즈 및 레크레이션도 진행했다.

2선교구 연합회장 조성길 권사는 “앞으로 광림교회를 이끌어 나갈 스테반 선교회가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흥, 발전, 성장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5선교구 연합회장 김재관 권사는 “스테반 연합 선교회를 통해 교회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젊은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 광림교회의 미래의 주역들로 크게 성장해 나갈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6선교구 연합회장 유시영 권사는 “이번 연합 선교회를 계기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6선교구 스테반 선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4월 16일에 10선교구, 4월 23일에 4선교구, 9월 10일에 9선교구, 9월 17일에 2, 5, 6선교구가 모임을 가졌다. 10월 15일에 8선교구, 10월 22일에 3, 7선교구, 11월 12일에 1선교구가 스테반 선교회 연합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유병권 기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월 17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16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박준희/도현, (부)박상권, (모)김수지 백민아, (부)백승호, (모)고지연 임주아, (부)임기현, (모)함영은 이지율, (부)이상민, (모)전소민 윤건, (부)윤희용, (모)이성아 이서현, (부)이승호, (모)정정현 김버리, (부)김정민, (모)강혜경
최시은/사론, (부)최호근, (모)김은경 김하연/도율/이래, (부)김성규, (모)정혜은 최지유, (부)최원석, (모)김혜정 임서정, (부)임용석, (모)제영란 김태은, (부)김희정, (모)박정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제2차 성인 세례 및 입교 예식> 9월 17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32명 세례, 18명 입교

세례 →	3교구 유건재	6교구 전숙영	6교구 김남식	6교구 최지영	7교구 고훈정
	8교구 정동하	9교구 정민희	16교구 박미나	19교구 김현	19교구 한지울
	21교구 송성연	22교구 양동진	25교구 박경은	25교구 이순옥	26교구 권영남
	26교구 양승현	52교구 양동필	52교구 최지애	52교구 박희훈	52교구 임동환
	71교구 이수현	88교구 김희정	88교구 유현찬	88교구 오종은	88교구 전교원
	교회학교 김태연	교회학교 유다윤	교회학교 김보영		
입교 →	1교구 이성진	3교구 양현철	8교구 박하람	16교구 박성우	22교구 김보리
	22교구 김철	25교구 황지웅	28교구 배성현	28교구 배성민	51교구 이한동
	51교구 정주희	52교구 양승현	88교구 김윤지	88교구 김성준	88교구 박준희
	88교구 지영호				



2023 하반기 청년선교국 해외 단기선교

9월 27일 ~ 10월 3일까지 일본·네팔에서 진행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3년 하반기에 몽골, 일본, 네팔 3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한다. 선교사를 통하여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300명의 청년이 응답하였고, 39명은 '가는 선교사로, 261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제일 먼저 몽골 선교팀이 지난 8월에 현지 사역을 완수하고 돌아왔으며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과 네팔 선교팀이 출발한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 몇 달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청년들은 일주일간 일본과 네팔에 가서 예배 사역과 심방과 신학생 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등을 진행한다.

먼저 네팔 선교팀은 6박 7일의 일정 동안 네팔감리교회(NMC)의 현직 감독인 수먼 고우

덤 목사와 동행하며, 감리교신학교 집회, 세계선교감리교회 부흥회 등 다양한 예배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일본 선교팀은 야마가타 광림교회 도신우 목사와 함께 현지 성도들을 심방하고 예배 사역과 찬양 위십, 그리고 무언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팔 선교팀의 조예선 청년은 "지난 2월에 첫 해외선교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누리고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해외선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을 때에 네팔이라는 낯선 땅이 마음에 자꾸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제게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보

여주실 일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기대되고, 팀원들 모두 주 안에서 안전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오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일본선교팀의 성원제 청년은 "지금 일본 선교를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입니다. 일본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많은 상처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야마가타에서 외롭게 교회를 지키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가 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선교의 시간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과 비전을 따라 선교하는 광림교회 청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네팔 선교팀



일본 선교팀

신앙 간증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 1교구에서 속장 직분을 맡고 있는 김정운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적은 없었고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는 게 즐거운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삼수까지 이어지는 입시를 치르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다가 고등학교 친구의 전도를 통해 광림교회 청년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림 청년부에 등록하고 처음으로 속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속도원들과 함께 교육선교와 성령한국 청년대회 등 많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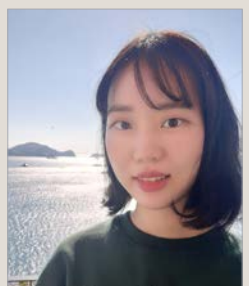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막내라고 귀여워해주는 언니 오빠들, 새로 사귀 친구 동생들, 그들과의 진솔한 나눔과 뜨겁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순간들이 너무 좋았고 그 기억들은 매년 교육선교와 행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쌓이고 쌓여 속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교회에 오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청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이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장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번 2023 국내 교육선교에서는 처음으로 팀장을 맡게 되었는데 선교팀을 이끄는 것에 부담과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선교 일정이 되었을 때 걱정이 무색하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와 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돌립니다.



김정운 속장(청년부)

교회학교 소년부

트리니티와 제자훈련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광림교회 교회학교 소년부는 2023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트리니티와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이 속해 있는 소년부는 트리니티를 통한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와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신앙적 돌봄을 계획하였다.

소년부 트리니티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관 5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된다. 현재 1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있다.

소년부 제자훈련은 1기와 2기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제자훈련 제1기는 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 5층에서 진행된다. 현재 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복음의 기초를 세우라'는 주제로 기독교 기본 교리와 천국,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구원에 대해 교육 받고 있다.

제자훈련 1기를 이수한 학생들은 제자훈련 제2기 해피스쿨 예배 인도법을 수강할 자격이 주어진다. 제자훈련 제2기는 11월 5일부

터 12월 17일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같은 곳에서 '예배로 세상을 치유하라'는 주제로 해피스쿨 예배 인도법을 배우게 된다. 해피스쿨은 학교 안에서 자원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역자나 선생님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스쿨 예배 인도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소년부 고정수 전도사는 "세상은 '너만의 진리대로 살라'와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

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 가르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광림교회 소년부에서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트리니티와 제자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며 소년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베트남 호치민에 임한
꺼지지 않는 불



김기민 선교사(베트남선교센터)

2020년 코로나로 약 2년 동안 한국에 발이 묶이게 되면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 계획이 막혔던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베트남으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베트남어도, 단독 목회 경험도 없었던 제가 불붙었던 말씀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다면 다듬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곳 광림센터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본당 성도님들의 꺼지지 않는 중보기도는 선교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간증과 기도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2월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방문하여 베트남 광림선교센터 교회학교를 일으키는 큰 불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광림선교센터는 인도차이나반도 선교 전초기지의 사명을 갖고 세워졌습니다. 하루는 인도차이나반도 젓줄인 메콩강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선교센터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 땅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어 메마른 베트남 영혼들의 가슴을 적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베트남을 넘어 인도차이나반도 곳곳에 파도처럼 덮어가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허가 둔했던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이셨던 것처럼, 베트남에 온 지 17개월 동안 한베 두 가정을 통해 베트남어 속회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3주 전부터 우리 선교센터에서는 주일 11시 예배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트남 현지 선교의 지경도 넓혀 주셨습니다.

베트남 중부 고산 지대인 '곶뚝성'에 우물 선교와 교회학교 세미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곶뚝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세미나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올해부터 연 2회로, 더 많은 현지 교사들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공과 자료를 배우고 시연하는 열심들이 모여 산족 마을 교회학교 곳곳을 살리는 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트남 땅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큰 광경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림남교회

찬양과 봉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광림남교회 가나안 성가대는 동탄광림교회 3부 예배 성가대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은혜가 퍼지면서 지난 9월 10일(주일) 신대연 권사를 비롯한 54교구 연합속회에서 찬양으로 섬겼고, 10월 1일(주일)에는 남선교회 임원과 회원들이 찬양으로 섬길 예정이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섬김들이 교회의 허리인 청장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청장년들이 남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올프레이즈 찬양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남교회 청장년부에서도 지

난 9월 2일(토) ~ 3일(주일) '제17회 아름다운 청장년부 캠프'에 참석하였다.

세 번의 예배와 레크레이션, 한마음 찬양 FESTIVAL을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고, 청장년들끼리 더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원희 집사는 "이번 청장년부 캠프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였는데,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동탄광림교회 청장년들도 함께 하였는데, 예배와 캠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느껴졌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캠프의 은혜를 나눴다.

이러한 캠프 이외에도 남교회 청장년부는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 모임을 통해 더 연합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인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허리인 청장년들이 더 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김현진 전도사



광림북교회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전교인 잠언 통독

하루 한 장씩 31명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전교인이 함께 나눠



광림북교회에서는 2023년 가을학기 트리니티에 발맞추어 9월 한 달간 전교인 잠언 통독을 진행하고 있다. 총 31장으로 기록된 잠언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31명의 북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전교인이 함께 잠언을 통독하고 있다. 목회자를 시작으로, 권사, 집사, 중고등부 학생들과 몽골인 성도까지 9월 한 달간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참된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번 전교인 잠언 통독이 특별한 것은 광림북교회 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세대와 기성세대, 남자와 여자, 기존 교인과 새가족, 그리고 한국과 외국까지. 서로 다른 모습과 과거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성도들이 잠언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한 성도는 "잠언 통독 나레이터로 참여하면서, 딱딱하고 낯선 성경의 언어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꼭꼭 담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나이가 나레이터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통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성도는 매일 아침 8시마다 문자 메시지로 올리는 잠언의 말씀이 하루하루 기다려지고,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은혜를 나누었다. 또 한 집사는 바쁜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이 성경을 읽는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 책의 제목처럼 '습관이 영성이자'라는 말

이 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참된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광림북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루하루가 모여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한 개인의 영성이 되고, 이 영성이 모여 광림북교회의 자람이 되길 소망해 본다.

말씀으로 깊어지는 가을의 계절,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독할 분들을 광림북교회 유튜브 '온타임 잠언 통독'으로 초대한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 3:13-14)

유민재 전도사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⑩
기드온선교회

서로를 격려하며 섬김의 기쁨이 있는 곳

기드온선교위원회(위원장 박영노 장로)는 이 단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예배 시 또는 호렙산 기도회 등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차 안내 등 교인들의 주차 질서를 유도하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1부예배 출차부터 봉사하는 선교회 회원들은 차량 이동이 잠잠해지면 지하 1층에 있는 선교회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기드온선교회에는 남선교회, 사회사업위원회 등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봉사하는 회원들이 많다.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홍기원 권사는 “봉사하는 것은 어디든 비슷하다고 본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등 경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봉사하는 것 자체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힘들 때는 그만큼 은혜가 더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현대고등학교에서도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한 성도가 나도 주차 봉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와 지금껏 같이 봉사하고 있다. 그분이 송형호 권사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형호 권사는 “당시 수고하는 봉

사자들의 모습이 은혜가 되었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이다. 개인택시를 하면서 승객들에게 신앙을 권유할 때 보람을 느낀다. 최근 경기도로 이사한 후 호렙산 기도회나 기드온 봉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가정에서나 물질적으로도 좋은 소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교회 주차 공간은 사회봉사관 지하 6층 매 층마다 정 주차 95대, 통로 주차 45대 등 140대이며, 본관 지하에는 통로 주차 포함 약 30대로 교회 내 총 주차 공간은 약 870대

정도의 규모다. 일반 주차 공간에 비하면 넓지만 예배 시 집중되는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며,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위해 봉사하는 인원도 부족한 현실이다.

기드온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기 권사는 “기드온선교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봉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함께 연합하여 섬김의 기쁨을 나눌 교인은 언제든지 연락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문의 : 010-3529-9736

이득섭 기자



김정석 담임목사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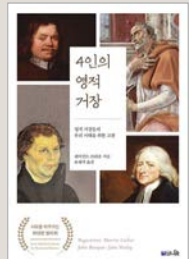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비전]

리처드 미들턴, 브라이언 왈쉬 지음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 한국 문화와 현대의 세속 문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혼재된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사회는 여러 부분에 대해 관망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책은 날로 거세지는 세속 이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과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말하며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생명과 인도의 희망을 기독교의 사회적 구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전 영역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명과 희망을 만들어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4인의 영적 거장]

레이먼드 브라운 지음

2천 년이라는 세월을 넘긴 기독교 역사를 되 돌아보면 시대마다 탁월한 남긴 인물이 많다. 저자는 그 중에서 네 명의 인물(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존 번연, 존 웨슬리)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시대와 맞물린 극적인 삶과 부단한 변화의 모색 때문이다.

이 책은 네 명의 영적 거장들의 성장과 내면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각 시대마다 힘겨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의료선교회 세미나 ⑧ 피부과

흔하게 만나게 되는 여름철 피부 질환

피부는 신체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므로, 피부 질환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질환군이다. 특히 한국의 여름철은 습하고 더운 기온으로 피부 노출이 많아지고, 습도 등으로 인해 미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다. 피부질환은 시진 즉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강좌는 다양한 피부 사진들을 보면서 주로 여름에 주의할 피부 질환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들여다보았다.

첫째, 습진 즉 피부염이다.

여름은 습진이 있기에 가려운 계절이다. 비교적 흔한 아토피피부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아토피피부염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이 있고, 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건조한 겨울철에 악화되는 환자도 있으나 반대로 습

하고 더운 여름에 심해지는 분들도 많다. 접촉피부염으로 땀과 습도로 오랜 시간 젖어 있는 피부는 장벽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염에 취약하게 된다.

둘째, 세균감염성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농가진이다. 보통 6월부터 장마철에 이르는 기간이 각종 피부 감염 질환의 유행률이 증가하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봉소염 등 감염의 진행이나 다른 전신 반응이 올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셋째, 피부진균증으로 즉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다. 피부사상균에 의한 다양한 무좀이 생길 수 있으며 세균 감염이 합병할 수 있으니 사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루러기와 같이 증상이 별로 없는 진균감염증도 있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넷째, 두드러기는 여름에 심해진다.

두드러기의 원인과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대체로 여름에 더 가렵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홍반이나 두드러기처럼 보이는 피부 병변일지라도 일반적인 두드러기가 아닐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진단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드름과 주사(Rosacea)를 기억해야 한다.

주사는 여드름과 매우 비슷한 질환이라 오진하기 쉬운데, 햇볕이 강해지는 4월부터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름에 얼굴이 자주 민감하고 붉어지며 때로는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한다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아야 한다.

안효현 권사(의료선교회위원회)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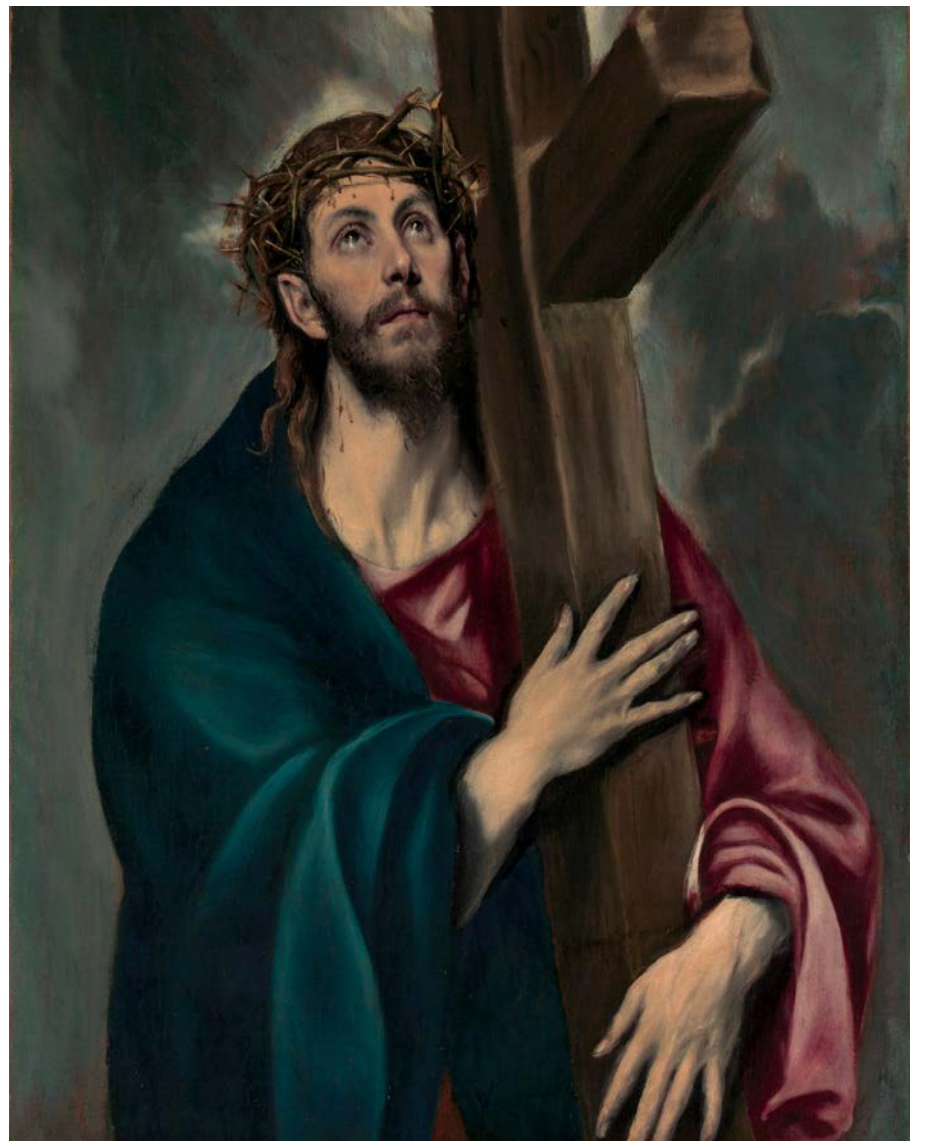


골고다의 십자가와 예수의 수난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 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 27:32-37)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빌라도 총독은 자기 수하의 병사들에게 예수를 넘겼다. 곧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 놓고, 예수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옷은 벗기고 붉은 겂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으며, 왕의 흉처럼 오른손에 막대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시늉을 하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유대인의 왕, 만세!” 병사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렸다. 실컷 예수를 조롱하던 그들은 다시 겂옷을 벗기고, 본래 그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지칠 대로 지친 예수는 빌라도 총독의 법정 이었던 안토니아 요새의 문을 나섰다. 요새 앞에는 예수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다. 그들 중에는 예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그를 따르던 지지자들도 있었다. 또 예수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도 있는 등 다양한 군중으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형장(刑場, 사형을 집행하는 곳)으로 향했다. 얼마나 곁었을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예수는 힘에 겨워 쓰러지고 말았다. 다시 억지로 일어났지만,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며 다시 쓰러졌다. 예수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로마 병사가 군중 속에서 구경하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저 십자가를 대신 운반하여라.”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예수는 그 십자가를 뒤따라갔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예수의 처절한 모습에, 그를 따르던 모친(母親) 마리아와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예수가 여인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山)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이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겪을 무서운 재앙을 예언한 것이다.(이 재앙은 40년 뒤인 기원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



▲ 십자가를 멘 예수 그리스도_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힘겹게 걷고 있는 장면이다. 엘 그레코의 작품



투스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재 함락되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형장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눈물로 얼룩진 ‘고난의 길(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이었다. 예루살렘 북쪽 교외의 언덕인 골고다 (‘Golgotha’ 해골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라틴어 ‘갈보리/Calvary’라고도 함)는 오래전부터 공개 처형장이었다.

광림뉴스레터

◀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_ 피테르 브뤼헬의 작품

“추석 명절 선물로 좋습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